6월 수출입 중소기업 환율전망조사 결과

○ **수출입 중소기업들의 원/달러 환율 전망은 '보합'**
- 3개월 후 환율로 조사시점(6/18일, 1,022.1원) 환율 대비 0.2원 하락한 1,021.9원을 전망
- 1년 후 환율은 조사시점 대비 소폭 상승한(6.2원↑) 1,028.3원을 예상

○ **수출입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,039.3원**

○ **하반기 중 '세자릿 수 환율'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기업은 38.5%**
- 반면, 연말에는 환율이 '상승'(응답기업의 47.1%)할 것으로 예상

(1) 최근 원/달러 환율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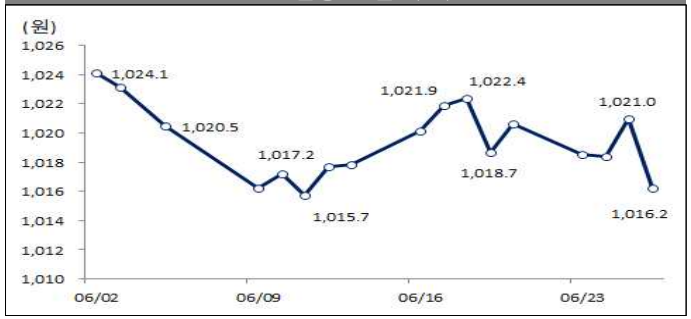
□ 6월 중 원/달러 환율은 하락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,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일시적 등락 반복

○ 월 초반에 하락세가 지속되며, 5년 10개월 만에 1,010원대 진입
- 6/11일, 1달러당 1,015.7원까지 하락

○ 중반에는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반등, 상승세가 4일 연속 이어짐
- 이라크 사태 및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환율이 상승

○ 이후, 수출업체의 월말 네고 물량 증가 등으로 환율이 다시 하락

'14.6월중 환율 추이



※ 주 : 국제금융센터 매매기준율 종가 기준

(2) 3개월 후('14.9월말) 환율전망 : 1,021.9원 (보합)

※ 보합, 상승, 하락에 대한 판단은 환율 전망치 기준

□ 중소기업들은 3개월 후('14.9월말) 환율로 조사시점(6/18일, 1,022.1원) 환율 대비 0.2원 하락한 1,021.9원을 전망

○ '하락' 응답이 35.6%로 가장 많았지만, '상승' 응답이 34.6%, '보합' 응답이 29.8%로 응답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- 전월 조사와 비교할 때도 응답비율은 큰 차이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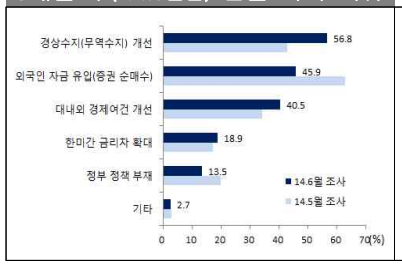
3개월 후('14.9월말) 환율전망	응답 비율		평균 환율전망	
	전월('14.5)	'14.6월	전월('14.5)	'14.6월
하 락	32.7%	35.6%	1,006.1원	1,007.6원
보 합	30.8%	29.8%	1,024.8원	1,020.0원
상 승	36.4%	34.6%	1,041.9원	1,038.2원
전 체	100.0%		1,024.9원	1,021.9원

□ 3개월 후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자들의 주요 환율 하락 사유는 '경상수지 개선'(56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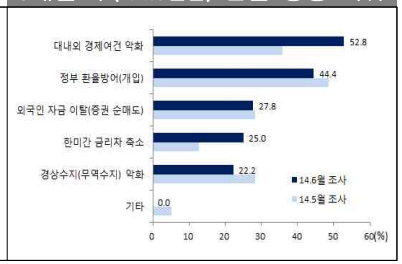
○ 환율 하락 사유 중 '경상수지 개선'(13.9%p↑) 응답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
- 반면, 전월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던 '외국인 자금 유입' 응답은 16.9%p 감소

○ 환율 상승 사유로는 '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'(52.8%)응답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(16.9%p↑)하며 가장 많았음

3개월 후('14.9월말) 환율 하락 사유



3개월 후('14.9월말) 환율 상승 사유



※ 주 : 복수응답

(3) 1년 후('15.6월말) 환율전망 : 1,028.3원 (소폭 상승)

※ 보합, 상승, 하락에 대한 판단은 환율 전망치 기준

□ 중소기업들은 1년 후('15.6월말) 환율로 조사시점(6/18일, 1,022.1원) 환율 대비 6.2원 상승한 1,028.3원을 전망

○ 응답비율은 '상승'이 43.3%로 가장 많았고, '하락'은 29.8%, '보합'은 26.9% 차지

- '하락'은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(5.7%p↓), '보합'은 소폭 증가(5.4%p↑)

1년 후('15.6월말) 환율전망	응답 비율		평균 환율전망	
	전월('14.5)	'14.6월	전월('14.5)	'14.6월
하 락	35.5%	29.8%	996.1원	997.7원
보 합	21.5%	26.9%	1,025.7원	1,019.9원
상 승	43.0%	43.3%	1,057.3원	1,054.6원
전 체	100.0%		1,028.8원	1,028.3원

□ 1년 후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의 주요 사유로 '대내외 경제여건 악화'(51.1%)를 가장 많이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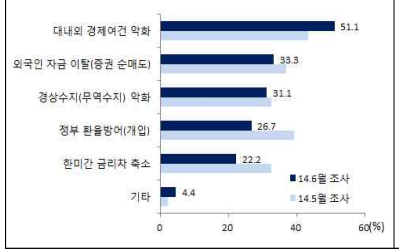
○ '대내외 경제여건 악화' 응답비율은 전월에 비해 증가(7.6%p↑)

- 반면, '대내외 경제여건 악화'를 제외한 다른 응답은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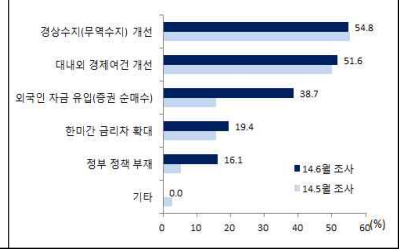
○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주요 환율 상승 사유로 '경상수지 개선'(54.8%)을 선택

- '외국인 자금 유입'(22.9%p↑)과 '정부 정책 부재'(10.9%p↑) 응답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

1년 후('15.6월말) 환율 상승 사유



1년 후('15.6월말) 환율 하락 사유



※ 주 : 복수응답

(4) 손익분기점 환율

□ 수출입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,039.3원

○ 손익분기점 환율 하락이 지속되며 1,030원 대까지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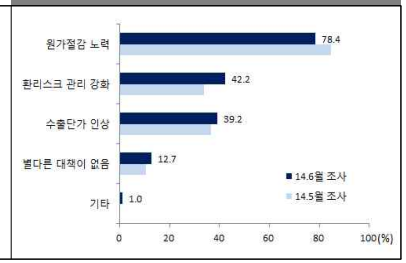
※ 손익분기점 환율 추이(원) :
1,064.6('14.1) → 1,060.2('14.2) → 1,067.4('14.3) → 1,052.8('14.4) → 1,047.2('14.5) → **1,039.3('14.6)**

- 수출 기업들의 환율 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은 '원가절감 노력'(78.4%), '환리스크 관리 강화'(42.2%), '수출단가 인상'(39.2%), '별다른 대책 없음'(12.7%) 순

손익분기점 환율 추이



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시 대응방안



※ 주 : '14년 6월 평균 환율은 일일환율(6/27)로 대체, 한국은행 ※ 주 : 복수응답

(5) 세자릿 수 환율

□ 2014년 중 원/달러 환율이 1달러당 1,000원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8.5%

- 나머지 61.5%는 '아니오'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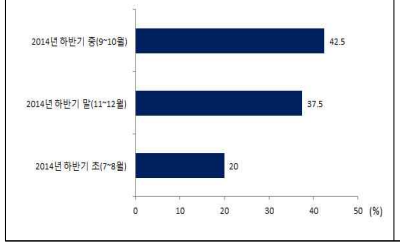
○ 1달러당 1,000원 미만으로 하락한다면, 하락 시기는 '2014년 하반기 중반(9~10월, 42.5%)'일 것으로 예상

- 37.5%는 '하반기 말(11~12월)'일 것으로 예상하였고, 20.0%는 '하반기 초반(7~8월)'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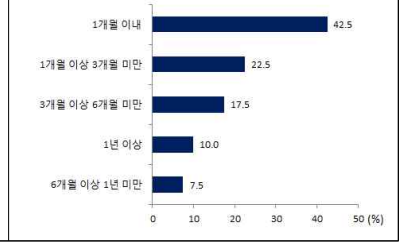
○ 세자릿 수 환율의 지속 기간은 '1개월 이내'(42.5%)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'1개월 이상 3개월 미만'(22.5%)으로 나타남

- '3개월 이상 6개월 미만'은 17.5%, '6개월 이상 1년 미만'은 7.5% 였으며, 세 자릿 수 환율이 '1년 이상' 지속될 것으로 보는 기업도 10.0% 존재

세 자릿수 환율 시기



세 자릿수 환율 기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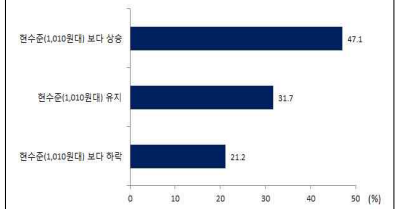
□ 한편, 2014년 연말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보다 더 많았음

○ 조사 당시 환율 수준인 1,010원 대 보다 '상승'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47.1%였고, '보합'은 31.7%, '하락'은 21.2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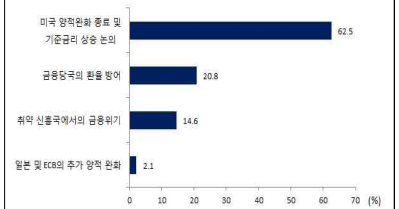
○ 연말 환율 상승의 주요 이유로는 62.5%가 '미국 양적완화 종료 및 기준금리 상승 논의'를 응답

- '금융당국의 환율 방어'는 20.8%, '취약 신흥국에서의 금융위기'는 14.6%였으며, '일본 및 ECB의 추가 양적 완화'로 인한 환율 상승은 미미(2.1%)하다고 판단

2014년 연말 환율



연말 환율 상승 이유



< 조 사 개 요 >

1. 조사기간 : 2014. 6. 18 ~ 2014. 6. 19(2일간)
2. 조사대상자 : 당행 거래 중소기업 180개사
3. 응답 비율 : 60.0%(108개사)